
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포용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1.9.(목)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(02-2100-2850)	담 당 자	이 종 림 사무관 (02-2100-2851) 이 지 형 사무관 (02-2100-2852) 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54)
	기재부 거시정책과장 심 규 진(044-215-2830) 기재부 국제금융과장 유 병 희(044-215-4710)		손 정 혁 사무관 (044-215-2831) 박 승 환 사무관 (044-215-4716)
	금감원 거시감독총괄팀장 김 동 철(02-3145-8172)		정 재 홍 선임조사역 (02-3145-8596)
	한은 안정총괄팀장 신 현 열(02-750-6834)		권 준 석 과장 (02-750-6851)
	국제금융센터 종합분석실장 안 남 기(02-3705-6232)		오 정 석 기획부장 (02-3705-6231)

제 목 : 「금융시장반」 제1차 회의 개최

[금융시장반 제1차 회의 개요]

- 일시 / 장소 : '20.1.9.(목) 15:00 ~ 16:00 /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
- 참석자 : 금융위원회 부위원장(주재), 금융정책국장, 자본시장국장
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
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, 국제국장
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원장보, 금융투자 부원장보
국제금융센터 부원장,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,
JP Morgan 이코노미스트, 대신증권 애널리스트

- 금융위원회는 '20.1.9(목) 15:0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금융시장반 회의(반장 : 금융위 부위원장)를 개최하였습니다.
- 금융시장반 회의는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(1.6일) 및 「관계부처 합동대응반」 구성(1.8일)에 따른 후속조치로, 향후 중동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수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.

- 특히, 금융시장반은 중동 사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
정확한 상황판단과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뿐
아니라,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석하였습니다.

※ (별첨)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-	---	--	--

[배 경]

□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
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

- 다행히 어제(1.8일, 미국 현지시각)
무력사용을 원치 않는다는
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
위기감이 완화되면서
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*하였습니다.

* 1.8일 미국 주가 변동률(%) : (다우) +0.56 (S&P500) +0.49

- 그러나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,
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,
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지난 1.6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
관련 동향 및 국내외 시장상황을 점검하고,
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,

- 1.8일에는 중동 사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
「관계부처 합동대응반」을
구성·운용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.

□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,
합동대응반 內 설치된 5개 대책반* 중 하나인
금융시장반 회의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

* 금융시장반, 국제유가반, 실물경제반, 해외건설반, 해운물류반

[국내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]

□ 지난 연말 이후 美 - 中 무역분쟁이

1단계 합의로 완화되면서

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,

중동 지역 불안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로

국내 금융시장도 일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.

○ 코스피와 원/달러 환율은

美 - 이란 갈등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,

CDS 프리미엄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,

연초대비 다소 상승하였습니다.

* 코스피 : (1.6일) 2,155.1, $\Delta 0.98\%$ → (1.7일) 2,175.5, $+0.95\%$ → (1.8일) 2,151.3, $\Delta 1.11\%$

환율 : (1.6일) 1,172.1, $+5.0$ 원 → (1.7일) 1,166.4, $\Delta 5.7$ 원 → (1.8일) 1,170.8, $+4.4$ 원

CDS : (1.6일) 24.00 $+0.99$ bp → (1.7일) 23.35, $\Delta 0.65$ bp → (1.8일) 23.37, $+0.02$ bp

□ 최근 중동 지역 불안으로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,

과도한 불안감 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지켜보고

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
○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

순대외채권(4,798억\$, 19.9월말), 외환보유액(4,088억\$, '19년말) 등이

최고치를 경신하는 견고한 상황입니다.

○ 우리나라의 對이란 익스포저가 미미하고,

이란 자금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

매우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,

○ 향후에도 급격한 자금유출 또는

우리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 우려도

크지 않습니다.

- 외국인들은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
안전자산 선호 성향이 강해짐에도 불구하고,
IT주를 중심으로 4거래일 연속
코스피 순매수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.
- 그리고 시장·지역 전문가들은 대체로
향후 미국과 이란간 긴장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
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향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,
중동 지역의 불안 지속되는 경우,
유가상승 및 수출감소 등 실물경로로 인하여
금융시장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
[금융시장반의 역할]

- 이에 금융시장반은
긴장감을 낮추지 않고,
금융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.
- 중동 사태와 관련하여
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,
對중동 익스포저 및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을 점검하며,
금융시장 불안 발생 시
조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우선, 관계기관과 함께
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.
- 중동 지역의 불안이 안정될 때까지,
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,
국내외 금융시장이 받는 영향과 움직임을
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.

- 상황 발생 시 각 기관별 컨틴전시 플랜이
적절한 시기에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
既마련된 금융·외환시장의 컨틴전시 플랜을 재검토하여,
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
컨틴전시 플랜의 적절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- 또한 중동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
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급격하게 커지는 경우에는
컨틴전시 플랜에 따라
신속하고 과감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
[마무리 말씀]

- 예견된 위험은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.
("Danger foreseen is half avoided")
- 우리도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미리 알 수 있다면,
그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.
- 이를 위해 금융시장반은
보다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,
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,
한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.
- 美 - 中 무역분쟁 등 기존 불확실성들도
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
중동 지역의 불안이 겹쳐
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는 않으나,
- 보다 엄중하게 현 상황을 인식하고, 철저하게 대비한다면,
우리가 직면한 위기는
"half avoided"가 아니라
"fully avoided"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.